

##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1.29~12.2)

### 1. 한일 국장국 협의 개최 관련

#### □ [동향]

- 한일 양국은 통상당국 간에 수출규제 문제 관련 협의를 12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합의<sup>1)</sup>
  - 12월 4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전 준비회의도 개최할 예정

#### 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카지야마(梶山)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28일 양국 간 과장급 준비회의를 실시하였고, 12월 16일주에 도쿄에서 '수출관리 정책대화'를 개최하는 방안에 양국이 합의하였다고 발표<sup>2)</sup>
  - 또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는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현황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교환 및 양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대해 상호 간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힘.
- 수출규제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출관리체제 정비, 양국 간 지속적인 대화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음.
- 개별허가규제로 전환된 반도체 3개 소재에 관해서도, 여러 가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, 수출 실적을 쌓는 것으로 서로 상황을 잘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, 이를 토대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발언

#### 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하여 정책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지만,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심사

1) 「"한일, 다음 달 도쿄서 '日 수출 규제' 국장급 협의 개시"」 『SBS』 (2019. 12. 29).

2) 経済産業省. 「梶山経済産業大臣の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」 홈페이지: <https://www.meti.go.jp/speeches/kaiken/2019/20191129001.html>  
(검색일 : 2019. 12. 2).

체제인 ‘캐치올 규제’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평가<sup>3)</sup>

-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의 수출심사를 담당하는 전문부서 직원을 2020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약 5배 증원(45명)할 예정
  - \* 일본은 한국을 그룹A(기존 백색국가)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책 대화의 재개, 수출관리체제 확충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.
- 아사히 신문은 국장급 회의와 관련, 양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<sup>4)</sup>
  - 양국 간 ‘대화’는 2008년을 시작으로 평균 연간 1회씩 총 6회 개최되었으며, 2016년 6월 이후 한일 관계 악화로 단절된 상황이었음.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(11.22) 이후 재개에 합의함.
  -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“이번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 철회, 원상 회복을 목표로 대화에 임할 것”이라고 하였으나, 일본 정부는 “한국의 무역관리체제 및 법 정비 등을 확인하는 자리”라고 하면서 “무엇인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(경제산업성)”이라고 주장
    - \* 카지야마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번 협이가 “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, 현재 상황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대화를 실시할 것”이라고 발언<sup>5)</sup>
-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입장로서는 한국의 수출관리체제가 개선되고, 그것이 정책 대화를 통해 확인될 때까지는 수출규제를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에, 정책대화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양국의 경제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<sup>6)</sup>

3) 「韓国、輸出管理を強化、職員拡充へ、日本と対話加速狙う。」 『日本経済新聞』 (2019. 11. 30).

4) 「日韓局長級協議、来月中旬開催へ 輸出規制巡り」 『朝日新聞』 (2019. 11. 30).

5) 「日韓対話、来月第3週 輸出管理厳格化 東京で局長級」 『産経新聞』 (2019. 11. 30).

6) 「輸出管理 日韓改善見通せず 日本、確認まで厳格化維持」 『産経新聞』 (2019. 11. 30).